

예술이백그라운드 갤러리 세화전 9명 작가 참여 회화·도자 등 전시

올해는 육십 간의 42번째인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이다. 을(乙)은 푸른색을, 사(巳)는 뱀을 의미한다.

오래 전부터 뱀은 지혜와 영민을 상징하는 동물, 나아가 변혁의 표상으로 인식됐다. 흔히 겨울잠에서 깨어 생기를 발하는 뱀은 영생의 존재로 여겨졌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뱀이 치유의 신으로, 고대 인도에서는 땅과 비를 관장하는 풍요의 존재로 상징됐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푸른 뱀'을 모티브로 하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복합예술공간 예술이백그라운드 갤러리는 올해 첫 세화전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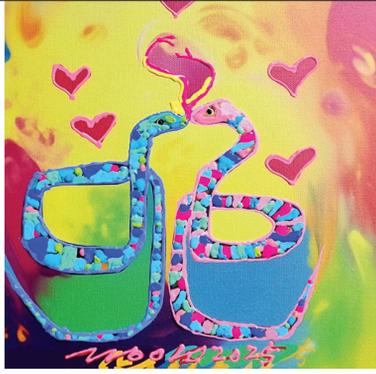
'을사청사-푸른 뱀을 부적하라'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푸른 뱀을 표현한 회화, 드로잉, 도자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이며 전시 오프닝은 11일 오후 2시.

참여 작가는 정정임, 이호국, 박성휘, 박해경, 임수영, 정순아, 최근일, 진허 작가다. 이들은 광주전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로, 저마다 뱀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작품에 투영했다. 작가들은 자신만의 개성적인 필치로 푸른 뱀을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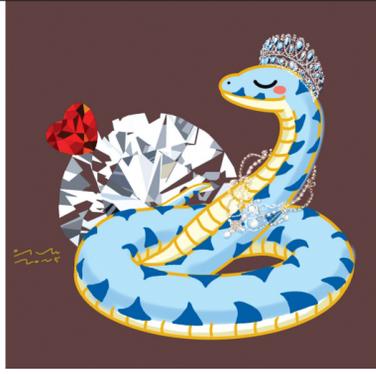
이당금 대표는 "세화는 새해 복을 바라고 액을 막고자 조상들의 소박한 소망을 담은 그림"이라며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인 세화를 통해 을사년의 새로운 기운과 복을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정임 작가의 작품은 미소를 짓게 한다. 평소 생각하는 정그림과 무서운 뱀 이미지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두 뱀이 서로 입을 마주한 모습은 사람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푸른 뱀과 분홍색 뱀은 각각 수놓과 압늬를 상징하는데, 두 뱀이 입맞춤을 하는 순간 주위에는 붉은 하트가 솟아오른다. 뱀을 인간의 사랑에 등치시킴으로써 세해에는 모두 사랑하고 존중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정순아 작가의 '올해 당신이 제일 빛날 거야'에 등장하는 뱀은 평범하지 않다. 고고하면서도 귀티가 난다. 머리에는 다이아몬드 왕관을 쓰고 기다란 목에는



정정임 작 '사랑해'



정순아 작 '올해 당신이 제일 빛날 거야'

을사년 푸른뱀 스토리



이호국 작 '야호잡아랏'

가느다란 목걸이를 걸고 있다. 그림은 뱀이 지닌 일상적 이미지를 전복시키고 영물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사유하게 한다. 이호국 작가의 드로잉은 특유의 유희와 유머가 빛이 난다. 뱀과 인간의 밀당을 일상의 모습에서 그린 듯한 드로잉은 보는 이에게 미소를 짓게 한다. 기다랗게 누워 있는 뱀은 잘 닦인 길로 형상화됐다. 남자와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허겁지겁 뱀의 배를 타고 달리는 모습은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준다. 진허 작가의 '변화무쌍'은 포아리를 들고 있는 뱀을 마치 미로처럼 이미지화했다. 둥근 포아리가 아닌 사각의 포아리가 형형색색의 맞물린 형상은 뱀에 대한 편견을 깬다.

전시를 위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11일 전시 오프닝에서는 9명 작가의 푸른뱀 작품과 다양한 먹거리가 마련된다. 또한 뮤지션을 초청해 간단한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14일에는 9명의 작가들과 함께하는 드로잉 체험 이벤트 '나도 화가다'가 펼쳐진다. 자기만의 뱀을 그려보는 시간으로 전시도 보고 그림도 그릴 수 있다. 18일(오후 12시~2시)은 화가가 요리사로 변신하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오방색 떡국을 끓여내는 화가 요리사의 맛있는 점심과 에피타이저로 그림 이야기를 곁들인다. 오방색이 지닌 의미를 그림으로 해석하며 그림 속 인문철학을 생각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 겨울에도 봄은 피었다'

강남구 초대전, 2월 27일까지 ACC디자인호텔갤러리



'공간-생명력'

어지러운 시국과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매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찾아온다.

서양화가 강남구 작가의 초대전이 오는 2월 27일까지 ACC 디자인호텔갤러리(1층 대전실)에서 열린다.

'그 겨울에도 봄은 피었다'는 화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랜 시간 풍파와 시란고난한 역사를 지켜보았던 매화를 초점화한다. 전시는 작금의 현실과 맞물려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사실 매화는 우리 삶의 복잡다단하면서도 한편으로 화양연화 같은 면을 내재한다. 55화씩 열리는 이번 개인전은 매화를 통해 우리 삶을 관조하고 사유하는 시간이다.

작가는 자연과 공간을 매개로 시시각각 변하는 매화의 감흥적 인상과 근경을 밀도있게 재현했다. 화려한 분남, 흐드러지게 피어난 매화 이면면의 후경은 몽환적이다. 꿈결 같은 풍광은 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정차하게 담아낸 듯하다. 반면 이제 막 피어난 꽃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화사하면서도 정경이 그지 없다.

특히 거칠고 부드러운 화면은 단색의 색채를 대비적으로 활용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표면은 나이프를 사용해 투박한 질감을 주지만, 약간의 거리를 두면 생화 같은 착시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강 작가는 "작품을 창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매화가 참 우리 삶과 유사한 면이 많다는 점을 느낀다"며 "가장 아름다운 시절처럼 빛나고 흐드러지게 핀 매화는 마치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느끼는 아스라하면서도 관념적 풍경을 사유하게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 작가는 다수 국내 아트페어를 비롯해 광주 시립미술관 개관 초대전 외 단채전 및 초대전 70여 회 전시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 빛고를 미술대전 외 다수의 심사 및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미협, 한국전업작가회, 광주구상작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옷칠 공예·인장 만들기·바틱 체험...

ACC, 1~2월 '아시아 예술체험'

'아시아 공예', '아시아 정원문화', '아시아를 새기다', '인도네시아 공예'.

아시아 문화와 예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1~2월 문화정보원B2 문화교육실에서 '2025년 ACC 아시아 예술체험'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가치와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성인 대상 (오후 2시, 7시) 강좌가 12회 진행된다.

먼저 '아시아 공예'는 지역별 특성, 자연 환경에 따라 제작이 발달한 공예를 짚어본다. 옷칠 공예 가운데 한국 나전칠기에 대한 이모저모를 접하고 나전칠 공예품을 제작한다.

동아시아 정원 문화를 아우르는 프로그램도 있다. 천혜의 자연 환경에 따라 개성적인 문화로 발전해온 정원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정원으로 꽃꽂이를 재해석할 예정이다.

'아시아를 새기다'에서는 아시아 인장(印章)의 발전 흐름에 초점을 맞춰 자신만을 위한 인장을 만들어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인류무형유산물을 가늠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공예'에서는 '바틱' 체험이 주가 된다. 인도네시아를 천을 일컫는 '바틱'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의 다양성과 독특성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이강현 전당장은 "'아시아 예술체험'은 아시



'아시아 공예' 프로그램 장면.



'아시아 정원문화' 프로그램 장면. (ACC 제공)

아 문화의 보편성, 특수성 등을 두루 접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올해도 ACC는 자체 마련한 문화교육을 매개로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문화 예술의 창'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참가비는 모두 무료이며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계 예술영화, 올해도 광주극장서 만나요

'쇼잉 업'·'부모 바보' 등 개봉

신년을 맞아 광주극장에서 다양한 예술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원작 영화부터 예술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메타예술 영화까지 다채로운 라인업을 소개한다.

먼저 오는 8일에는 '삶에 대한 은밀한 깨달음'을 선사하는 켈리 라이카르트 작 '쇼잉 업'이 개봉한다.

작중 조카가 리지는 중요한 개인전을 앞두고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다. 은퇴한 아버지 집에 기거하는 떠돌이 부모도, 괴짜 예술가인 오빠의 정신상태도 걱정이다. 게다가 대학 동기이자 집주인인 조는 개인전 준비를 핑계로 일주일간 고장 난 보일러를 고쳐주지 않는다. 고민에 휩싸인 리지가 전시회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을까?

작품은 분종호 감독으로부터 "어떤 영화는 아무것도 모르고 볼 때 시작이 아름답다. 켈리 라이카르트 영화가 그렇다"는 평을 받았다.

이어 9일에는 '부모 바보'가 관객들을 찾아온다.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장편경쟁부문, 제49회 서울독립영화제 본선 장편경쟁 등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다.

사회복지사 진현은 직업을 일삼는 사회복지무원 영진으로 인해 힘들어한다. 어느 날 진현은 영진이 노숙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당분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다. 한편 힘겹게 홀로 살아가던 순례는 국가가 자신을 수급자로 지정해 주지 않아 진현에게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한다.

이 외에도 광주극장에서는 현재, '서비스터스', '밀레니엄 맘보'를 비롯해 '모든 것은 아르망에서 시작되었다', '움베르트 에코, 세계의 도서관', '이처럼 사소한 것들', '더 폴: 디렉터스 컷' 등을 선보이고 있다.

김형수 전무이사는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예술영화들은 저마다 주제, 표현, 구성 측면에서 국내 관객들에게 다양한 감각을 선사할 것이다"고 했다. 성인 1만 원, 디트릭스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모집 24일까지 접수...545명 선발 예정

문체부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7개 국립예술단체가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무용, 연극, 클래식 음악, 전통 등 4개 공연예술 분야에서 총 54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립오페라단(45명)을 비롯해 국립합창단(50), 국립심포니(90), 국립발레단(30), 국립극단(80), 국립현대무용단(30), 국립정동극장(20), 국립국악원(120), 국립극장(80)에서 활동할 인원을 뽑는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관련 분야 대학 졸업생(또는 졸업 예정자)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 등은 참여 불가)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지역(남원, 진도)에서도 청년 교육단원이 각각 20명씩 활동하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활동지원금,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이 제공된다.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강지은 과장은 "청년 교육단원으로 선발되면 마스터클래스나 실무교육, 무대출연 기회 등을 지원받게 된다"며 "특히 올해는 지역 공연 등 '로컬 기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니, 지역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